

## 보존기록의 서사적 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rrative Archival Description

안정희(Ahn, Jung-Hee)\*\* · 이해영(Rieh, Hae-young)\*\*\*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2. 서사적 기술에 관한 이론 연구
  - 1) 서사의 개념
  - 2) 기술의 변화와 서사적 기술의 필요성
  - 3) 서사적 기술의 정의와 기술의 서사성 확보 방안
3. 서사적 기술의 사례
  - 1) TNA의 '하이라이트와 이야기'
  - 2) OAC Huntington Library의 '컬렉션 가이드'
  - 3)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주제별 설명서'
  - 4) 오픈아카이브의 '사료이야기'
4. 결론

\*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박사학위논문(2024)을 요약·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박사(sungminjane@naver.com)(제 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hyrieh@mju.ac.kr)(공동저자).

■ 투고일: 2024년 06월 14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6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7월 03일.

■ 기록학연구 81, 89-131,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81.089>



## 〈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아카이브 환경에서 기록의 생산맥락과 구조를 함께 보여주는 기술이 이용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록물의 이야기적 기술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론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에 서사적 요소의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보존기록 기술과 서사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서사적 기술을 기술에서 기록의 서사성을 확보하여 이야기하는 행위로 개념화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TNA, OAC,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 오픈아카이브의 기술을 조사·분석하여 서사적 기술을 ‘기록의 이야기’, ‘기록의 재구성’, ‘기록 해제 및 설명’, ‘정리기술현장에서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의 서사성 확보’, ‘서사 플롯 설계’의 유형으로 식별하였다. 또한, 서사적 기술이 이용자들이 기록을 보다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자신의 시각에서 다시 경험과 기억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돕는다는 것과, 기록의 해석과 해석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아키비스트의 업무활동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아카이브를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기록 접근점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출처와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주제적 접근이 가능한 기술 안으로서, 기술할 기록의 선별에 관여함으로써 방대한 기록으로 인한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서사적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사적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맥락 구성자로서의 서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록에 대해 폭넓고 깊은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기획함으로써 실행이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보존기록기술, 서사적 기술, 아키비스트의 서사정체성, 협업, 스토리텔링 기술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narrative description as an improvement to describing archives, thereby enhancing the user experience of archives. To achieve this, the

study identifies the specific forms and positions of narrative elements in archives and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archival description and narrative elements. It also examines cases where narrative description has been applied in digital archives to analyze their purposes and identify the variou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description for the improvement of description and considering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implementing narrative descriptions.

Theoretical research explores the concept and role of narrative and analyzes how it is manifested in describing archives. Case studies investigate the types of narrative description in digital archives and explore their roles.

Narrative description emphasizes that it can facilitate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the narrative identity of archivists as context constructors, conducting extensive and deep research on records, and planning collaborations with experts. However, due to the lack of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for narrative description in the practical archive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odels of narrative description and prepare various examples of narrative applications.

**Keywords:** Narrative Description, Archivist Identity, Contextual Understanding, Collaboration, Storytelling Description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록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이다(O'Toole & Cox, 2006, p.39)”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유기체이다(Clandinin & Connelly, 1990). 스스로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서술한다. 눈앞의 단발적인 현상만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도 이야기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전후의 사건이 연결되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고 익숙한 것들도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드라마, 소설, 영화 등과 같은 미디어 매체는 이러한 서사의 구조와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객이나 독자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들의 참여와 관여를 유도한다. 서사는 매체의 도구로서 작용하여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 캐릭터의 발전, 플롯(plot)의 전개 등에 영향을 미치며, 매체는 이러한 서사적 요소를 적절하게 구현하여 관객이나 독자의 이입감과 감정적인 연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카이브에서는 서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이용자들의 아카이브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기록은 “인간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입수한 데이터나 정보를 매체에 고정시킨 것(기록학 용어 사전, 2008)”으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활동 또는 경험이 문서화 된 것이다. 서사는 사건과 활동에 내재된 요소로 사건이나 활동에서 발생하는 행위자들의 목표와 동기, 갈등 및 해결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이야기(김애령, 2020)이므로 기록에도 서사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다만, 기록의 형식과 특성으로 인하여 서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록은 조직이나 개인 활동의 부산물로서 활동의 내용이나 흐름이 담겨 있으나 개별기록만으로는 그 의미를 읽어내기 쉽지 않다. 복합적 현실이라는 하나의 활동이 발생하고 그 활동의 증거로 기록이 만들어진다. 회의라는 한 활동에서 회의록, 속기, 메모 등이 생산되고 그 각각의 기록들은 모두

같은 활동의 재현이지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며 하나의 활동의 부분만이 표현되기도 한다.

기록이 어느 활동의 부분인지 정리·분류하고 각각의 기록들을 생산 당시의 맥락을 반영한 질서를 부여하고 기록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의 내용과 구조 및 맥락 등을 기술(description)하여야 비로소 읽어내기 쉬워진다. 그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과 정보, 기록과 증거를 이어주고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맥락이다(설문원, 2019). 이때 각각의 기록의 맥락에 대한 지식은 그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Yeo, 2007).

기록기술의 목적은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맥락, 내용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다(이해영, 2020). 이런 까닭에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기록을 찾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기술을 작성한다. 즉 이용자는 기술을 통해 기록을 읽는다.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NAK 13:2022(v2.1))에서는 기술규칙의 영역과 요소 중 ‘내용과 구조’를 필수 기술 항목으로 정하고 기록물의 범위와 구조, 내용, 가치를 요약하여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아카이브에서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몇 항목만 서비스하고 있고 ‘기술’에서 ‘내용과 구조’가 작성된 기술을 찾기 어렵다. 방대한 기록의 양과 제한된 인력구조로 보존기록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의 빈약만이 기록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아카이브를 하나의 콘텐츠로 간주하며 온라인에서 편리하고 자유로운 의미검색과 주제검색에 익숙한 이용자들은 기록의 생산맥락과 구조를 함께 보여주는 아카이브의 계층적 기술을 불편해한다(설문원, 2019). 물론 기술이라는 요소를 메타데이터 표준에 제시하고는 있으나 주로 메타데이터는 기록의 특성이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언어와 용어를 사용한다. 단일 항목 또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키워드 중심으로 제공하는데 단어 자체만으로는

해당 기록이 속한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단어가 나온 문장이나 문단의 전후 내용,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당 단어가 가진 의미와 연결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텍스트 자체의 본질인 통일성과 응집성의 확보가 어려워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해당 기록물이 속했던 시대, 장소, 인물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연결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서사적 요소를 이해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기록물이 보존, 이관, 정리·기술 및 재현과정에서 이야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이 함의하고 있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세계와의 연결을 회복하려는 이야기적 기술 지향은 기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이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항목보다 더 넓고 광범위한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기록기술에 관한 연구는 메타데이터 설계, 매체에 따른 혹은 아카이브의 특성에 따른 기술요소의 추가, 기술표준 적용, 기술요소의 자동획득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기술의 내용과 기술의 방법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록과 맥락의 관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사(설문원, 2021)가 기술에서 구현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사의 개념으로부터 기록학에서의 서사적 탐구 영역을 탐색하고, 아카이브에서 기술의 역할을 조명하여 보존기록에서 서사성 확보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론연구를 통해 서사적 기술을 개념화하고 기술에서의 서사성 확보방안을 탐색한 후 사례연구로 디지털아카이브에서의 서사적 기술의 유형을 식별하고 가치와 역할을 정리하여 보존기록 기술의 개선안으로서 서사적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보존기록기술의 서사적 탐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디지

털아카이브의 기술 개선 안으로 서사적 기술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카이브에 서사는 있는가? 있다면 그 서사적 요소의 구체적 형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보존기록 기술과 서사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둘째,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서사적 기술의 사례를 조사하여 서사적 기술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식별하고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연구자는 연구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정리·분석하였다. 보존기록의 서사적 기술과 직접 관련된 연구가 적어 기록학과 서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술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서사적 기술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존기록 기술개선 촉진 및 방안에 관한 연구의 영역에서 각각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합·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기록학에서의 서사 연구이다. 데리다(Derrida, 1996)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글쓰기를 통해 기억을 보존하려는 ‘자기보존의 욕구’와 과거를 해체함으로써 원초적인 현존을 회복하려는 ‘자기 파괴의 욕구’가 충돌하는 장소다. 우리가 아카이브를 통해 이미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아카이브에는 부재의 흔적이 보존되는 것이지 과거의 기억 그 자체를 보존할 수는 없다. 이 존재와 부재 사이의 긴장이 아카이브의 서사를 형성하고 아카이브는 기록의 선택과 정리로 형성되는 고유한 서사를 가지며, 아카이브의 서사는 기록들이 수집되고 보존되고 목록화됨으로써 폐기, 누락, 재해석되는 과정을 겪으며 구성되고 동시에 해체된다(Derrida, 1996).

케텔라르(Ketelaar, 2001)는 아키비스트의 평가에서 서사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서사는 특정 기록의 잠재적 중요성을 드러내고 평가는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서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암묵적 서사(tacit narrative)로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아키발라이제이

선(archivalization)이라 명명하며 적극적인 맥락 구성자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둘째, 기술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검색도구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기술’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쿡(Cook, 1996)은 기술을 보존기록을 생산한 맥락과 기록의 구조, 그리고 기록을 선별, 관리, 배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기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으로 보존기록기술은 생산기관에서 지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관리환경으로 이동 배치된 비현용 기록에 대하여 사후적이고 회고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다(Millar, 2006).

맥닐(MacNeil, 1995)은 “기술은 생산된 원래의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로 움직임으로써 조직 내 기록물 생산에 광범위하게 걸쳐진 행정적이고 문서적인 문맥에 관한 지식을 기록하고 전달한다. 이것의 목적은 기록물을 보존, 영속, 그리고 증명하여 시대를 넘어 현재뿐만 아니라 잠재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하게 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Yeo, 2010)는 원질서의 보존보다 ‘관계’와 이용자의 입장에 더 관심을 두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존기록의 분류가 지향하던 기록집합체의 수직적 계층화가 전자 환경에서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각 기본 계층의 기록은 자신의 맥락을 가지며 (특히 디지털환경에서는) 그것의 맥락을 기록화하는 것과 그것의 지속적 접근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모두에 메타데이터를 필요로 한다(Yeo, 2017). 기술이 기록생산단계에서 메타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록의 집합이 이루어진 가장 나중에 작성하던 유일한 기술적 방법은 하나의 기술 방법이 되었다. 기술은 이제 기록의 어떤 맥락정보를 획득할 것인지를 기록생산 이전에 기술요소 항목을 설계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은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로서의 기술을 탐색한 연구이다. 쿡(Cook, 1997)은 기술표준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연결하여 의도와 해석이 없는 재현은 없으며 기술은 항상 사실과 서사 그리고 해석과 관찰을 결합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였다. 기술은 이용자에게 기록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기록의 의미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기여한 모든 사람의 참여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쿡(Cook, 2001)은 기록은 행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산 및 매개되고 구성되며 굴절된 상으로 인식하므로 기록학에서는 업무과정의 맥락보다 사회·문화적 맥락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며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복합적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맥락적 요소들의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네스미스(Nesmith, 2002)는 아키비스트들이 기술작업을 할 때 기록에 의미 있는 맥락을 형성하여 기록의 해석과 기록의 생산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기록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생산할 때, 어떤 사실이 중요하고 어떤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검색도구는 조사·연구를 촉진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 역사적 상황에 따른 문화적 텍스트이며 아키비스트들이 포함하고 배제하고 강조하고 무시하는 것들로 구성된다(Nesmith, 2002).

더프와 해리스(Duff & Harris, 2002)는 기록은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기록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더 넓은 사회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기술이 변화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확장된 출처의 개념은 기록물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문맥화하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출처 개념은 기록물이 생성된 조직 또는 개인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확장된 출처는 이 관련성을 넘어 기록물이 생성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더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려는 시도이다(설문원, 2009).

비티(Beattie, 2009)는 Hudson's Bay Company Archives(HBCA)와 The Archives of Manitoba가 보유하고 있는 3개의 여성 일기를 사례로 ‘확장된 출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인기록에 관련된 맥락정보를 구성하

는 요소가 무엇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카이브가 일기 출처에서 일기의 작성 동기, 의도된 청중, 일기 보관 이력의 의미, 그리고 일기의 표현 네 가지 가치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정보를 기록기술 요소에 통합하는 것이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록의 기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카이브가 획득한 기록의 중요성을 해석하고 이 판단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기술에서 서사적 탐색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지머슨(Jimerson, 2009)는 전통적인 기록처리방법과 기술 체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카이브의 기술이 선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키비스트가 인지할 것과 아키비스트가 알고 있는 바와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뉴멕시코의 AAMHC(A:shiwi A:wam Museum & Heritage Center)의 스리니바산 외(Srinivasan et al, 2009)는 영국의 고고·인류학 박물관(Cambridge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CUMAA)과 협력하여 카탈로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메타데이터와 기술 구조를 고안할 때 일상의 경험과 이야기가 중요한 맥락정보임을 알게 되었다. 이 협력 카탈로그 프로젝트는 연구원들이 고안한 'The Amidolanne Collections Database'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뉴멕시코의 토착민 푸에블로족인 Zuni족의 도움을 받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기록에 다른 기술을 붙일 수 있고 지역 맥락으로부터 산출된 영역에 다른 기술을 입력할 수 있었다. 즉 기술에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이해가 다른 것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맥락정보의 형태가 프로젝트 시행 시 만든 기술 지침과 사뭇 다르게 작성되었다. Zuni족 연구참여자들은 기록의 서사와 일상에서의 해당 기록의 이용과 사용처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술 안으로 Zuni족의 일상경험과 이야기들이 들어왔다.

넷째, 보존기록 기술개선 촉진 및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김선유(2022)는 인공지능의 문서 요약 기술(Technology)을 적용하여 기록의 생산단계에서 기술의 자동획득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범위와 내용’기술 항목의 기술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직 기술되지 않은 기록 건수를 대략 도출하였다. 이 숫자를 기반으로 실제 아키비스트가 직접 기술을 작성할 경우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AI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대상 텍스트가 명확한 텍스트 형태의 건 계층기록에 한하여 기술 자동획득을 탐색함으로써 기록물 기술 자동화의 효율성을 탐색하였다.

정리하면 서사는 기록들이 수집되고 보존되고 목록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구성되는 동시에 해체되고(Derrida, 1996), 의미를 생성하는(Nesmith, 2002) 생산자로서 아카이브에 존재한다. 아키비스트는 입수한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작업을 하며 컬렉션 내의 기록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출처와 기록의 해석을 돕는 맥락(Yeo, 2017)으로 서사와 지식 구조를 중계하거나 전달(Shilton & Srinivasan, 2007)하며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맥락 구성자로서의 임무(Ketelarr, 2001)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쿡(Cook, 1992), 네스미스(Nesmith, 1998), 더프와 해리스(Duff & Harris, 2002), 비티(Beattie, 2009)는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의 기술이 선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아가 기술에서의 자신의 가정, 편견 해석을 공개할 필요성과 다양한 서사가 아카이브에 존재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으로는 국내 아카이브의 기술에 대한 인지 부족과 기록기술업무인력 부족으로 기술이 잘 수행되지 않는(고은지, 이해영, 2022) 현실과 방대한 기록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록물 기술의 자동화 방안을 탐구(김선유, 2022)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컬렉션의 특징에 따른 기술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공영역의 기록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민간아카이브를 주목(조은성, 2013)하고,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제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서사적 기술에 관한 이론 연구

### 1) 서사의 개념

#### (1) 서사의 보편성

서사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매일 이야기를 하므로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담화(談話)에는 서사가 나타난다(Barthes, 1982).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 속에 포함된 의미를 찾아내어 이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배열하기도 한다.

“본명은 진 멜로니예요. 수녀회에서는 세례명인 요안나라 불러요. 한국 이름은 문애현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부산 가정집에서 배웠어요. 그때는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아주 간단한 말, ‘여기 와서 앉아요’, ‘약 받아주세요’, ‘내일 오세요’를 배웠지요. 하루 13시간 넘게 일을 한 거 같아요. 환자들이 너무 많아 제가 병원 ‘문’ 앞에서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저를 ‘문 수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유일한 문(門)씨 성이 되었어요. 이런 이름 한국에 없어요. 한국 문화를 몰라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한번은 어느 집 문 앞에 ‘개 조심’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개 조심 씨! 개 조심 씨! 계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웃길래 저는 제가 실수할 줄도 모르고 따라 웃었어요.”<sup>1)</sup>

---

1) 한국메리놀수녀회의 요안나 수녀 구술 인터뷰(중평기록관, 2023).

앞의 구술기록에는 한 외국 수녀가 한국에서 어떻게 ‘문’이라는 유일한 성을 되었는데에 대해 말하는 서사가 있다.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에서는 좀 더 밀도 있게 집중된 시간이 흐르고 말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시간은 시계나 달력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화자에 의해 시간이 재구성된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구술 속에 묘사된 특정한 이야기에 대해 미리 알고 있지 않아도 이야기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서사가 있기 때문이다.

## (2) 서사와 이야기

서사가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이야기 그 자체는 아니다. ‘요안나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라는 문장을 보자. 이것은 묘사나 설명이지만 서사가 될 수는 없다.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요안나는 혼자 태어나지 않았다. 쌍둥이 동생과 함께였다.”라는 진술은 서사이다. 쌍둥이의 출생이라는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서사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사건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사는 사건 그 자체도 아니다. 사건만으로는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이 누구에게든 전달되어야 한다. 본인에게든, 타인에게든 재진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사는 서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언어가 있어야만 형상화될 수 있다. 서술자가 사건을 구술하거나 기술하는 등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요안나 수녀의 생애 구술의 예를 보자.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처음과 중간과 끝의 구조를 갖는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줄거리라고 한다. 줄거리가 처음-중간-끝으로 연결될 때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 등의 질서를 따른다. 이 중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줄거리를 구성하는 것이 서사이다(Abbott, 2002). 그러므로 서사는 명사-이야기가 아니라 동사-이야기를 하는 행위이다. 이야기에는 말하는 주체도 듣는 주체도 없고 오

직 이야기만이 존재한다(Abbott, 2002). 그러나 서사는 말하는 주체와 듣는 주체가 존재하고 ‘말하고 듣는다’라는 대화와 소통의 동사적 상황이 성립될 때 형성된다(Abbott, 2002). ‘~가, ~에게, ~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서사인 것이다.

이야기가 텍스트라면 서사는 컨텍스트(맥락)이다(Chatman, 1990). 요안나 수녀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에 대해 본 연구자에게 이야기할 때 연구자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특정의 방식대로 듣거나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사 담화를 통해서만 그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요안나 수녀가 구술로 그 사건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은 존재는 하지만 포착되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의 실체를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들려주는 것에 의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는 언제나 서사에 의해 중개된다(Abbott, 2002).

이야기가 서사에 의해 중개될 때 듣는 사람(청자, 독자)과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위의 요안나 수녀의 구술은 증평기록관의 메리놀병원에 관한 기록수집사업<sup>2)</sup>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요안나 수녀의 생애 중에서 증평이 등장하지 않는 앞부분은 많이 축약되고 ‘증평’과 관련되는 사건들로 재배치되었다. 즉 이야기는 표현방식(서술)과 함께 서사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Chatman, 1990). 서사적 전달구조는 표현의 형식에 속하며 이야기하는 실제 행위인 구연, 영화, 무언극, 만화, 발레, 연극, 뮤지컬, 글쓰기 등은 표현의 실체에 속한다(임경순, 2004).

### (3) 경험과 서사정체성

모든 개인은 일생 동안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며 이는 그들이 말하는 이야

---

2) 2021년 증평기록 기획수집 및 증평군 개청운동 아카이빙 사업(증평기록관, 2021).

기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일 수 있다. 그런데 경험은 언어로 공표화되어야 내적인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

리코어(Ricoeur, 1984)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시간적 사건들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그 안에 다양한 경험적 요소를 통합하는 형상화 능력(미메시스)으로 시간이 이야기하는 결핍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간직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를 서사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라고 명명하였다.

경험은 언어로서 내적인 의미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언어로서 사회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고정적 실체가 없던 경험은 언표화되는 순간부터 고정된 경험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된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경험으로 변한다(이영남, 2013). 요안나 수녀의 ‘개 조심’ 경험은 구체적인 대상물과 언어적인 상징을 연결해 듣는 이에게 경험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야기함으로써 개인은 서로 다른 사건, 감정 및 인식 사이의 점을 연결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일관되고 의미 있는 설명을 만든다. 서사는 경험과 사건을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을 구성하는 것이다. 서사는 개인이 과거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안내하고 새로운 상황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용한다.

서사는 사건의 순서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경험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논리도 정합성도 없지만, 서사가 경험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는 것이다. 서사 정체성은 말하는 사람의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이며 그가 자기 삶을 어떻게 주체화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구성적 행위의 결과이다(김애령, 2020). 요안나 수녀의 한국 성 ‘뭉’의 이야기는 실증적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한국 사람 문애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즉 서사는 모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을 선택하고 다른 경험은 생략하여 특정 버전의 이야기를 구성한

다. 그러므로 서사 정체성 또한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 재적 관심과 기대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을 얻음에 따라 서사도 변화한다. 서사 정체성 또한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 2) 기술의 변화와 서사적 기술의 필요성

기술은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기술될 수밖에 없다(Yeo, 2017). 기술은 그곳의 문화적 개념을 반영하므로, 기술표준이 있어도 기록물 대상을 결코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더프와 해리스(Duff & Harris, 2002)는 기술에는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반영되는데 아키비스트가 기록에 관해 생각하는 바가 많을수록 그것이 기록기술에 더 드러난다고 하였다.

여(Yeo, 2017) 또한 아키비스트가 활용하는 기술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들도 기술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은 결코 불편 부당하지 않으며 그것을 기술하는 아키비스트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그 예로 여(Yeo, 2017)는 아키비스트들은 현실적인 업무환경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잘 조직된 기록 집합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불합리하거나 무질서한 것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하였다. 그에 비하여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의 출처와 초기 기록생산자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기술하지만, 이후에 관리자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등은 기록화하지 못하며 또한 자신의 평가와 정리에 영향을 미친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화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여(Yeo, 2017)는 행정 혹은 개인의 기록생산 맥락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록이 언급한 사람, 기록이 형성될 때의 행위자들, 그 기록을 다른 시간에 사용한 이용자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기술할 방안을 고민하였고 Nesmith (1991)의 사회적 출처,<sup>3)</sup> Hurley(1995)의 평행출처,<sup>4)</sup> McKemmish &

---

3) “기록의 존재, 특성, 및 연속적인 이력들을 설명하는 행위와 결정을 한 모든 개인, 조직, 기관을 수용 하는 사회적 출처”(Nesmith, 1991).



Piggott(2013)의 다중출처<sup>5)</sup>와 같은 출처 개념의 변화<sup>6)</sup>가 다른 목소리들을 기술할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술(Technology)의 발달로 기록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을 기술에 참여시켜 아키비스트가 제공한 검색도구를 수동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기술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자기록환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의 원리들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단 기술을 하기 어려울 만큼 기록의 양이 폭증하였다. 기록유형의 다양화와 대량기록물의 등장,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연계, 콘텐츠형 웹 기반 디지털아카이브의 보편화로, 기록유형별로 기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단위까지 기술하여야 하는지, 다른 검색도구와 비교 시 기술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문제가 정리·기술현상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에 영국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는 먼저 기계를 통한 기술의 자동획득으로 기술정책의 변화를 꾀하였다. 정부 부처에서 TNA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부처의 기록물 목록담당자들은 파일 단위에서 기록물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들은 개별문서 단위(document level)로 저장되어 이관됨에 따라 파일

- 
- 4) “기록화하는 과정에서의 사건들과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을 서사하는 평행출처주의”(Hurly, 1995).
  - 5) “기록 생산자의 정의를 기록생산과정에 기여했거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함으로써 ‘기록 주체’를 ‘기록 행위자’로 재배치하는 다중출처주의”(McKemish & Piggott, 2013).
  - 6)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이하 ICA)는 기록물 기술규칙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Experts Group on Archival Description, 이하 EGAD)을 결성하여, 2016년에는 차세대기록물 기술규칙인 기록기술을 위한 개념모형(Records in Context: A Conceptual Model for Archival Description, 이하 RiC-CM) 초안을, 2018년에는 RiC-CM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RiC은 종이기록 관리환경에서 기술규칙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산자-기능-기록 등 다양한 개체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출처에 포함하는 다중개체 모형의 기술방식이다. RiC는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나 업무활동, 혹은 관련 법령까지 기록물과 관련된 모든 생산맥락을 각각의 개체로 간주하고 기술된 각각의 개체는 ‘관계’를 통해 연계되며, 이렇게 연계된 네트워크 그 자체가 기록물에 대한 하나의 생산맥락을 나타낸다(박지영, 2016).

단위 기술이 불가능해졌다.

TNA는 기록물 자체에서 메타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Digital Records Infrastructure(DRI)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자기록물의 파일명을 추출하여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시리즈와 같은 상위단위에서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기술단위를 상향 조정하였다(TNA, 2017). 또한, 파일명을 자동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철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다(TNA, 2017).

대신에 자동추출된 파일명의 식별력과 설명력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범위와 내용’ 영역을 확장하였다(TNA, 2017).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시리즈 계층에서 만나도록 연계하고 확장된 ‘내용과 범위’ 영역에 구조화된 데이터 필드(성, 이름, 장소, 직업 등)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지영, 2017).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기록 건의 수가 급증하고 이용자들이 기록 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자 건의 기술에 그대로 적용된 집합적 기술의 기술요소 중에 불필요한 기술요소들의 발생에 대해 TNA는 기록물검색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정보의 반복금지’ 규칙을 없앴다(TNA, 2017).

이는 TNA 뿐만 아니라 다른 아카이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Yeo, 2017)는 맥락이 매우 중요하며 맥락적 지식이 높은 단위의 기술에서 획득되기는 하지만 높은 단위의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쉽게 당연하다 할 수 없다며 “이용자가 건 단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할 것이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건 단위의 기술을 수행할 자원을 가진 기록관은 거의 없으므로”<sup>7)</sup> 기술정보의 자동획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전

---

7) “어느 계층의 기록도 기술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쌓여 있다. Mark, Greene & Dennis, Meissner(2005)은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건 단위에서의 기술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미국의 많은 아키비스트들은 건 단위에서의 기술을 회피하는 “더 적은 과정으로, 더 많은 생산을”(More Product, Less Process, MPLP)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Yeo, 2017).

망하였다. 여(Yeo, 2017)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동화된 혹은 반자동화된 관계가 기록으로 포착되고 맥락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획득되어 기술되도록 기술(technology)의 발전을 촉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동획득기술 방법이 점점 더 낮은 계층으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기록건 단위에서 기술과 재현이 보다 일상적인 측면을 수행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아키비스트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자원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기록환경에서의 기술 변화에 대한 박지영(2017)과 Yeo(2017)의 연구를 기술이 이제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한 기술’과 ‘기록이 지니는 복합적 의미의 맥락적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로 각각 추구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두 기술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기술이 키워드 중심의 간략한 메타데이터 정보로 이루어질수록 기술의 서사성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된다고 본 것이다.

이미 2009년에 설문원(2009)은 검색도구나 기록이 이야기와 연계됨으로써 ‘검색도구에 대한 검색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아카이브의 경향성에 주목하였다. TNA의 Research Guides A-Z와 국가기록원의 온라인 주제서비스를 분석하여 검색도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기록을, 혹은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상을 포착한 것이다.

설문원(2009)은 검색도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복잡화, 통합화, 개방화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러한 검색도구의 새로운 경향이 등장한 배경을 계층적 기술이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구조이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용자들은 기록에 담긴 내용에 대한 다양한 주제적 접근을 원한다(설문원, 2009).

설문원(2009)은 같은 논문에서 복합형, 혼성형의 다양한 검색도구를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록과 연계되지 않는 콘텐츠는 기록이 생산맥락으로부터 이탈하여 파편화된 방식으로 편입되는 것이며 이는

---

8) Yeo, Geoffrey (2017). Continuing Debates about in the current Archival Thinking. p.192.

이용자들이 기록을 편의적이거나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설문원(2009)은 탈맥락화로 보고 탈맥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기술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점을 다원화하는 다양한 검색도구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탈맥락화가 발생하지 않는, 기록이 이야기와 연계되어 검색도구의 검색도구 역할을 하는 방안으로 ‘서사적 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사적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 3) 서사적 기술의 정의와 기술의 서사성 확보 방안

서사는 사건, 인물, 배경과 같은 이야기 요소를 ‘이야기하는 행위’이다. 서술자가 자신의 시점과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으로 재정리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사 정체성은 현재적 관심과 기대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김애령, 2020). 서술자는 사건, 경험, 기억에 의미와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의 전개 순서, 선택, 프레이밍, 강조와 생략과 같은 전략을 사용(Clandinin & Connelly, 1999)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다양한 상징과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며 과거의 구성과 재구성에 관련한 서술자의 의도와 해석이 동반된다.

이러한 서사는 아카이브에서 보존기록의 평가, 관리, 구성,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기록을 보존(평가)할지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결정은 기록의 서사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아키비스트의 서사가 기록의 보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처럼 서사는 아카이브의 구성과 재구성을 이끌며, 해석적 맥락으로서 아카이브에 존재한다. 특히 이용자들에게 아카이브의 소장기록에 대한 통일적인 개관을 제공하고 기록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이해 가능하도록 돕는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기록에 의미 있는 맥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과 관찰이 결합된 스토리텔링이다.

이제 검색도구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결과물인 기술이 어떻게 서사성을 획득하는지를 정리하여 서사적 기술을 정의하고자 한다. 서사적 기술은 기술에서 기록의 서사성을 확보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기록의 서사성은 아키비스트가 보존기록을 해석하고 맥락화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현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기록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 사회·정치·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고 가치를 해석하여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맥락과 정리·기술 현장에서 경험과 기억 등 기록의 복합적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맥락적 요소들의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Cook, 1992).

기술이 구조와 서술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듯 서사적 기술은 기술을 서사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서사를 만드는 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다시 구성해나가는데 구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 서사 전략을 기술에 구사하는 것이다. 이때 아키비스트는 기록이 생산된 맥락을 재구성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맥락 구성자(Nesmith, 2022)로서 기록물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케틀라르(Ketelarr, 2011)가 말한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아키발라이제이션을 기술에서 실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서사적 기술은 기록물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아키비스트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과 방법론들의 집합으로서, 생산된 기록물의 해석적 맥락과 함께, 보다 풍부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서술적 언어, 스토리텔링 기법 및 역사적 분석을 통해 기록 자료를 맥락화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중요한 사건을 강조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과 관점을 포착하여 기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기술에서 서사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상황화이다. 기록물의 상황과 서술자인 아키비스트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기록물의 상황화는 기록물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을 설명하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더 넓은

역사적 의미와 서사가 더 큰 역사적 풍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가 각각의 과거 시간에서 기록의 생산자, 사건(행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록을 존재하도록 한 것은 생산자이나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석적 맥락이다(Cook, 2001). 아키비스트는 해석적 맥락으로 기록의 생산에 기여를 한다(Nesmith, 2002). 아키비스트가 출처를 구성할 때 포함하거나 강조하기로 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읽을 때 의미 있는 내용으로 간주한 것은 무엇인지, 아키비스트의 정리와 기술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형성시키는 행위는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특정 경험을 선택하고 다른 경험을 생략하여 특정 버전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개인의 경험과 감정의 강조는 서사를 고유하게 만들고 이 서사를 통해 독자의 감정적 연결과 공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정체성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심과 기대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으므로 기술은 재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록물에 대한 해석이다. 서술자가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기록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숨겨진 의미와 중요성을 밝힌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용자를 고려해 선별한 보존기록은 그 해석을 통해 기록 뒤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 투쟁 및 성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비티(Beattie, 2009)는 아카이브가 획득한 기록의 중요성을 아키비스트가 해석하고 이 판단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술에 아키비스트의 해석을 공개하는 것은 다양한 서사가 아카이브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Duff & Harris, 2002). 보존하기로 한 결정과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이야기는 이용자에게 보존기록에 대한 신뢰감과 호기심을 증진해 기록의 접근성을 확장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고유성의 반영이다. 기록의 출처에는 해당 기록물이 생성되거나 사용된 시간, 장소, 작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출처의

고유성이 서사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민주화운동시민단체가 소장한 기록물에는 유독 ‘민주항쟁 ○○년’이라고 생산일을 표기한 기록물이 많다. 1987년 6월 항쟁을 기원으로 하여 그로부터 햇수를 세는 것이다. 이것을 서기(西紀) 2014년이라고 표기하는 순간 기록의 많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정보객체의 고유성을 향상하도록 메타데이터를 강화하는 것은 서사적 기술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다. 각 메타데이터의 내용을 합쳐서 문장으로 나열하는 것은 서사가 아니다. 또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거나, 기록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서사가 아니다(안병직, 2004). 이야기의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라 서술한다. 서사를 구성하는 인물, 배경, 일련의 사건은 기록의 맥락과 출처와 내용으로 비롯되어 이야기의 요소로서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며 기능에 따라 각각 중요성을 달리한다.

아키비스트가 자신이 읽은(해석한) 기록을 이야기를 들려주듯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무미건조한 기록 데이터를 공감과 소통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록 경험이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에 더 접근하기 쉽도록, 기록의 이해가 더 심층적으로 도울 것이다.<sup>9)</sup>

다섯 번째는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한 포괄성 확보이다. 디지털아카이브에서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종전의 문자를 매개로 한 스토리텔링에서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한다(원철, 2003). 미디어의 이용자 혹은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아카이브 내에서 이용자가 기록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배경지식을 갖춘 이용자를 포함하여 광

---

9) 디지털아카이브에서의 스토리텔링은 글쓰기 표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부분 정보가 책자 형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문자 중심이었으나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은 문자 대신 비주얼을 전달의 중심으로 옮겨놓고 있다(원철, 2003).

범위한 이용자가 서사적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자나 청취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공동으로 서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3. 서사적 기술의 사례

#### 1) TNA의 ‘하이라이트와 이야기’

TNA는 디스커버리 베타버전<sup>10)</sup> 컬렉션의 ‘하이라이트와 이야기’(Spotlight and Stories)에서 기록출처와 맥락의 이야기 요소들을 발굴하여 서사를 형성하였다. ‘하이라이트와 이야기’는 ‘주제별 탐색(Explore by topic), ‘기간별 탐색’(Explore by time period), ‘컬렉션의 이야기’(Stories from the collection)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컬렉션의 이야기’는 기록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기록 이야기(THE STORY OF)’와 ‘공개 기록(RECORD REVEALED)’으로 구분하였다. ‘기록 이야기’는 소설책과 같이 제목, 소제목의 목차를 구성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이에 문서와 사진과 구술기록 등 관련 기록을 배치하여 공문서의 활용을 강조한다. 이에 비하여 ‘공개 기록’은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Why this record matters) 박스를 따로 만들어 보존기록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기록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다. TNA는 영국문화원 장학금 공문서를 BW 84 시리즈 중에서 Louise Bennett-Coverley(1919~2006)의 이야기

---

10) TNA가 대중의 온라인 접근방식을 제구상하고자 2023년 6월에 오픈한 Explore the Collection이다. TNA는 대중이 디스커버리에서 “기록 뒤에 숨은 이야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다루는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볼 수 있도록” 베타 버전을 오픈한다고 밝혔다(TNA, 2023).



를 발굴하였다. Louise는 “시인이자, 공연가, 민속학자, 작가 및 교육자”(TNA, 2023)였는데 “1945년에 영국문화원 장학금을 받아 런던에 있는 왕립연극아카데미(Royal Academy of Dramatic Art, RADA)에서 공부를 했다.”(TNA, 2023) 그래서 TNA는 “Louise의 장학지원서 및 RADA에서의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Louise가 영국문화원에 장학금을 신청하며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기술한 것을 ‘기록 이야기’는 “Louise Bennett는 1919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Augustus Cornelius Bennett는 빵집을 운영했고 어머니 Kerene Robinson은 양장점에서 일했는데 1926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Louise는 주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녀는 Saint Marry Highgate의 College에서 자메이카 민속학을 공부했으며, 1943년 Sunday Gleaner(자메이카 전국 신문)에 처음으로 시가 게재되었다”로 재구성하였다. Louise는 자신이 영국문화원의 장학금을 받으면 “나는 자메이카 시골 지역에서 드라마 교사로서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위해 영국에서 연극방법론(CEMA, ENSA 극단 등과 함께)을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TNA, 2023).

‘기록 이야기’는 지원서에서 밝힌 그녀의 지원동기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그녀가 왕립연극아카데미에서 공부하게 된 배경을 “영국문화원이 Louise에게 RADA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원서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기관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그녀는 어디에서 공부할지에 대해 ‘영국문화원 드라마 부서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썼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하였다.

‘기록 이야기’는 Louise에 대한 기사가 실린 기록이 ‘카탈로그(Catalogue): BW 84/39 영국문화원 장학 문서(British Council Scholarships) 1945-1946’과 ‘카탈로그(Catalogue): BT 27/1600 사우샘프턴 출국 승객 목록(Outwards passenger lists for Southampton 1946)’에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Louise의 사례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용자

를 위하여 조사 가이드와 교육 자료를 추가로 안내하고 있다.

‘공개 기록’은 TNA가 소장하고 있는 Samuel Coleridge-Taylor의 작은 사진 모음집 중에서 양복 입은 Samuel Coleridge-Taylor의 사진을 보여주며 보존과 공개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였다. 사진은 1905년 Stockton-on-Tees의 21 Bridge Road에 거주하는 Robert Thirlwell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출한 공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당시 영국의 개인과 기업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 사진과 삽화를 제출하여야 했다(TNA, 2023). 이들은 Stationers’ Company를 통해 출판작 인증 등록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등록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는 작품 설명, 개인 세부 정보, 작가 또는 사진작가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야 했다(TNA, 2023).

이 공문서에 첨부된 사진의 인물이 20세기 초 “영국의 영향력 있는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Samuel Coleridge-Taylor(1875~1912)”(TNA, 2023)였던 것이다. TNA는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기록들에서 Samuel Coleridge-Taylor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으며 영국 신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공개된 사진 속의 그는 다양하게 우아한 포즈를 취하며 자신감과 세련미를 물씬 풍긴다. 그의 옷차림과 신중하게 선택된 배경 등의 세심한 배려는 그의 지위와 세련미를 더욱 강조한다. 이 출판작 인증 양식에는 상황별 정보가 없지만, 영국 사회 내에서 Samuel Coleridge-Taylor의 지위와 이미지에 대한 고유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이 사진기록을 통해 Samuel Coleridge-Taylor가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나타내어 당시 그의 재정적 안정 수준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이 사진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Samuel Coleridge-Taylor의 이미지가 가치 있게 여겨졌고 사진작가들이 그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TNA, 2023).

아키비스트의 보존과 공개 등의 결정 행위는 기록생산자보다 더 기록 생성에 기여를 한다. 아키비스트는 기록과 보존기록 사이의 연결을 통해 특정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관계와 관점의 재정의의 통해, 아키비스트는 기록 생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록은 고정된 제품이 아니라, 동적인 과정 일부이며, 아키비스트의 결정, 예를 들어 보존 기간의 연장은 의미를 형성하는 맥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 2) OAC Huntington Library의 ‘컬렉션 가이드’

OAC(Online Archive of California, 이하 OAC)<sup>11)</sup>의 Huntington Library 컬렉션은 기록물의 출처와 맥락에서 서사성을 확보하여 보존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자 서사적 기술을 수행하였다.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한 Burrud의 편지 컬렉션은 ‘전기/역사(Biographical/Historical)’에서 모든 기록물을 분석하여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편지에서 언급된 전투, 훈련, 그리고 전투 장소 등에 대한 상세한 맥락 정보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Burrud의 인생에 관련된 기록들 사이의 연결성을 찾아내어, 자서전 형식으로 그의 삶을 재구성하였다. 이 방식을 Burrud의 경험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며,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Burrud의 삶을 더욱 입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재현하는 작업이다.

---

11) OAC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컬렉션 소장기관, 기록보존소, 역사협회, 박물관 및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도서관 등 3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소장·관리하는 컬렉션의 상세기술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이다. 각 기관에서 보존·유지하고 있는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EAD를 이용해 집합적, 계층적으로 기술하였다. 24만 건(이미지 파일 및 기록을 포함) 이상의 디지털 기록을 OAC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있고 55,000개 이상의 컬렉션 가이드를 읽을 수 있다.

다음은 Burrud의 편지 컬렉션의 ‘범위와 내용’ 기술요소에 기술된 일부이다.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전쟁 경험, 정치적 견해, 종교적 감정, 그리고 집과 가족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담겨있다. 편지는 대부분 2~3일에 걸쳐 쓰였다. 1862년 9월 뉴욕주 오번에서 쓴 편지는 연대의 조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고 1863년의 편지에서는 뉴욕시에서의 훈련과 루이지애나로의 항해에 대해 썼다. 편지에는 전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지휘관(Weitzel, Banks, Grant, Sheridan 등)과의 회의만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조지아 시골, 특히 유적지(예: 제임스타운 교회의 유적, 존 브라운의 처형 장소, 조지 워싱턴의 가족 소유였던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타운 근처의 농장인 블레이크리, 워싱턴 D.C.의 박물관, 공공건물, 정원 또는 폴라스키의 크릭 인디언 마운드 카운티)와 경이로운 자연과 다양한 종류의 야생 동물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OAC, 2023) (출처: <https://oac.cdlib.org/findaid/ark:/13030/c8zc896f>, 검색일자: 2023.07.20)

‘범위와 내용’에서는 남북전쟁에 참전한 군인 Burrud의 편지로 그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탐구한다. Burrud가 공화당원으로서 노예제와 남부연합에 대한 그의 생각을, 편지에서의 직접 인용을 통해 상세히 드러낸다. 또한, 남부의 유적지와 자연환경에 대한 그의 서술, 그리고 아내와 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남북전쟁 시기 미국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서사는 아카이브의 손실<sup>12)</sup>을 해석하고 맥락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

12) 스트로우(Stowe, 2021)는 서사 이론으로 아카이브에서의 상실의 개념을 탐구하였다. 즉 서사는 아카이브의 명백한 유형의 손실, 예를 들어 문서 속에 사라진 문자, 훼손된 문서, 기록 집합에서 개별기록만 보존된 것, 문서 없이 참조만 남은 기록, 번역과정에서 손실된 다른 측면 등을 모든 프레임워크(의미, 문법, 논리, 힘, 표현)를 사용하여 해독하고

서사는 아키비스트가 컬렉션 내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기술하면서, 그 기록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형성된다. 초기 문서에서는 기록생산자가 세상을 이해하고, 편지를 쓸 당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서사의 핵심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아카이브가 구축되면서, 아키비스트 자신의 서사적 상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게 되며, 그 결과로 새로운 서사가 형성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록에 새로운 의미와 층을 추가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기록에 현재의 시각을 더하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화하는 서사 공간을 만든다.

기록의 물리적 범위와 형식에서는 기록생산자의 출생, 거주지, 교육, 직업, 중요한 활동, 그리고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비교적 간결한 이력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기록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아카이브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목록도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록의 실체를 구성하며, 그 기록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아키비스트의 읽기는 단순한 해석을 넘어 기록의 창조적 재구성으로 이어진다.

아키비스트가 Burrud의 편지를 해석할 때, 그가 편지를 쓸 당시 영향을 받은 사건들, 사회적 기대감, 그리고 관습들을 고려하여 편지 내용의 맥락을 재정립한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특정 기록들은 선택되고 다른 기록들은 생략되며, 이를 통해 특별한 버전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선택은

---

이해하여 맥락화하여 서술하고 재구성한다. 스토로우(Stowe, 2021)는 아카이브와 관련된 선택적 전유, 관계성, 인과적 활용에 주목하여 서사가 등장하는 주요 순간이 세 번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문서의 초기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자의 세계관, 작성 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에 서사의 흔적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아카이브가 구축될 때이다. 그리하여 구축된 아카이브는 생산자의 서사적 상황이 아니라 아키비스트의 서사적 상황을 대변한다. 세 번째는 이용자가 아카이브를 이용할 때이다. 이용자가 기록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서사를 재창조하려고 시도할 때 자신의 서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기억, 감정, 문화적 규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읽으면서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이를 재구성한다.

### 3)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주제별 설명서’

경험은 사건, 상황, 감정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서사는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아키비스트의 경험과 감정의 표현은 기록 내의 서사 구조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며, 이는 이용자들이 기록에 대해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는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의 소장자료를 서비스하는 디지털아카이브로 늦봄연보, 옥중편지, 추천콘텐츠, 국가지정기록물, 사료설명서,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료설명서의 ‘주제별 설명서’에서 문익환의 아내 박용길이 감옥으로 보낸 기록물 2,304통의 특징을 조사·연구하여 서술하고 정리·기술 현장에서 아키비스트의 감상과 해석을 기술하였다.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는 ‘옥중편지’와 ‘당신께’ 편지 간의 공유되는 특징과 관계를 파악한 후 “박용길 장로는 남편의 두 번째 구속 이후로는 매일 쓰기를 공언하였는데 많게는 한 달에 25통, 평균으로는 19통 정도를 써 보냈다. 반면 수감자인 문익환 목사는 편지를 보내는 횟수에 제한이 있어 ‘양보다 질’ 전략을 택해야 했다. 하지만 옥중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과 질을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듯하다. 두 사람의 편지의 서두에는 날짜와 함께 ‘제○신’이라는 서신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혹시 검열이나 배송 중에 누락 된 편지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다. 간혹 문익환 목사가 날짜나 서신 번호를 헛갈리면 박용길 장로는 각종 모임의 서기직 경력자답게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잡아 주었다.”와 같이 의미를 부여하였다.

아키비스트의 기록 경험은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기록의 이해와 해석에 필수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양한 삶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기록의 생성 자체는 단일한 출처에 불과하지만, 기록의 식별, 설명, 그리고 다른 기록과의 연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다. 이는 아키비스트의 기록기술이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 기록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구성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아카이브에서 획득한 기록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의 출처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아카이브가 사회적 기억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기록의 생산 맥락, 생산자의 동기, 보관 이력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아키비스트가 이러한 정리·기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감상의 서술은 기록작업의 투명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이용자가 기록물의 해석 및 구성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4) 오픈아카이브의 ‘사료이야기’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디지털아카이브로 사료컬렉션, 민주화운동일지, 사진아카이브, 구술아카이브, 사료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그룹에 기록물의 개요를 설명하고 해당하는 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준 후 기술의 ‘내용과 구조’에 해당하는 ‘사료소개’에 기록의 양과 기록 형태를 서술하였다. 기록 건의 ‘요약설명’은 간단하지만, 기록 건과 함께 검색된 다른 사진기록과 특히 사료콘텐츠를 통해 기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료콘텐츠<sup>13)</sup>는 여러 기록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형성하여 기술하였다. 자료콘텐츠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마다 총 133개의 ‘자료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시인, 평전작가, 소설가, 자유기고가 등이 참여하였고 글의 형식은 에세이, 인터뷰, 전기 등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1월에는 5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기자회견의 메카\_추억의 세실레스트랑’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글을 쓴 이는 소설가 김영현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기록 중 세실레스트랑 관련 기록을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이야기는 “젊었을 때 출판사 직원이었던 경식이 편집장의 지시로 신영복 선생이나 리영희 선생을 만나던 세실레스트랑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옛일을 추억하며 “덕수궁 옆 성공회 성당 맞은편에 달팽이처럼 빙글 돌아가는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세실레스트랑을 아내와 함께 다시 방문하는, 한 장소에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이 번갈아 발생하는 플롯으로 설계되었다.

서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의 ‘세실레스트랑에서 원로 시국선언문을 읽고 있는 백기완, 이효재, 박형규, 장을병’의 흑백 신문기사를 현재 시점에 경식이 아내와 다시 찾은 세실레스트랑의 컬러 사진기록을 함께 배치하였다.

서사의 전체 의미는 플롯을 통해 드러나는데, 플롯은 사건들을 구성하는 줄거리로서 역사가가 사건들을 어떻게 이야기로 엮는지를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차 특별한 종류로 변모한다. 역사가는 플롯을 사용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의 의미를 독자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반대로

---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은 2012년부터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자료이야기’를 기획하였다. 시민들의 아카이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 글쓰기의 필요성에 따라 소장자료를 스토리텔링 하기로 한 것이다. 자료팀에서 먼저 콘텐츠화할 자료를 선정하여, 집필 방향을 정한 후 작가를 섭외하여 작업하거나 사업팀에서 주제별로 자료를 엮어 이야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독자는 역사가의 플롯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안병직, 2004).

서사의 청자 혹은 독자들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플롯 구조로 이해함으로써 서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화이트(White, 1973)는 역사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며 과거의 의미는 서사의 특징인 이야기를 꾸미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오픈아카이브는 '경식의 일상 경험과 이야기'를 기술 안으로 들여와 플롯을 구성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록의 과거를 상상할 수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서사적 기술의 유형과 역할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서사적 기술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의 출처와 맥락으로부터 서사성을 확보하는 '기록의 이야기'유형이다. TNA의 '하이라이트와 이야기'는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장소 등을 생생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서사가 이용자들이 기록을 읽으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시각에서 다시 이 경험과 기억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돕는다(Ketelaar, 2005). '기록 이야기'유형은 공공기록과 일상의 삶을 연결하고 공공기록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이용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접근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기록 재구성'의 유형으로 기록생산자의 생애를 지역, 사회, 문화적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사건과 장소, 인물에 대해 서사적으로 기술한다. OAC의 Huntington Library는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을 서사적으로 표현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기록 해제 및 설명’의 유형으로 기록생산 당시 시대적 맥락과 법령, 조직구조, 기능을 해석하여 서사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유형은 기록의 보존 결정과 공개 결정 등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함으로써 아키비스트의 기술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넷째, 정리·기술 현장에서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서사성을 확보한 유형이다.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서사적 기술 유형은 정리·기술과정에서의 아키비스트의 경험과 감상과 기술하여 특정 주제의 소장기록들의 보편적 가치를 시민들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서술함으로써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해를 이끌어낸다.

다섯째, 서사 플롯을 설계한 유형이다. 오픈아카이브의 서사적 기술 유형은 과거의 정치적 사건을 현재 일반인의 일상의 삶과 연결하는 서사 플롯을 설계함으로써 매뉴스트립트 기관 소장기록의 보존가치와 의미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장기록에 대한 이용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할 수 있다.

사례 연구에서 확인한 서사적 기술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적 기술의 도입은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카이브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사적 기술은 아카이브의 보존가치와 의미를 이야기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기록의 수집과 보존가치를 알리는 등 아카이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서사적 기술은 기록의 플롯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록에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록의 출처와 맥락을 폭넓게 연구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용자들은 기록과 일상 삶의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정치·사회적 사건을 일상 경험과 연결하여 해당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사적 기술은 이용자들이 기록을 읽으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시각에서 다시 경험과 기억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사적 기술은 기록을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매력적인 이야기

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서사적 기술은 기록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기록에 등장하는 장소, 배경,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기록과 일상 삶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정치·사회적 사건을 일상 경험과 연결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록들이 이용자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보존기록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서사적 기술은 기록의 해석과 해석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아키비스트의 업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기록물이 생산된 시대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록의 생산 맥락과 구체적인 사건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아키비스트의 업무 활동 행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아키비스트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기록들의 맥락을 찾아가는 여정에 이용자들을 동참시킬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보존기록 기술에서 서사적 접근의 중요성을 탐구하며, 아카이브에서 서사적 요소와 그 역할을 분석하였다. 기록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전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인간 경험의 서사적 재구성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아카이브에서 기록의 생산 맥락과 구조를 함께 보여주는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록물의 이야기적 기술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사적 기술은 기술의 구조이자 표현방식을 동시에 함의하는 것으로, 기록물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아키비스트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

법과 방법론들의 집합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해석적 맥락과 함께 보다 풍부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전화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례 연구에서는 TNA, OAC,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 오픈아카이브를 조사하여 서사적 기술을 실행한 목적을 연구·분석하여 서사적 기술의 유형과 특징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서사적 기술이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카이브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기록에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기록을 읽으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시각에서 다시 경험과 기억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기록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록의 해석과 해석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아키비스트의 업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사적 기술을 보존기록 기술의 개선안으로 제안하며 기록기술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돕는 간단한 메타데이터 중심의 기술’이다. 이 접근방식에서는 기계를 활용한 기술 정보의 자동 획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해 기록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색인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는 ‘기록이 지니는 복합적 의미의 맥락적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 방향은 기록들의 복잡한 맥락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존기록을 서사적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식은 전자기록환경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기술의 중요성을 재정립하며, 기록의 접근성과 이해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록의 선별에 관여하여 방대한 기록으로 인한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서사적 기술 실행을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에 의미 있는 맥락을 형성하는 맥락 구성자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서사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서사적 기술은 기존의 메타데이터를 넘어서 기록에

내재한 풍부한 맥락과 의미를 포용하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는 맥락적 이해에 참여하여, 기록을 둘러싼 역사·문화·사회 맥락에 몰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사를 형성한 사건, 사람 및 환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키비스트는 이용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쓴다.

아키비스트가 서사적 기술을 하기 위하여 업무과정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힘을 쓰며, 기록의 복합적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맥락적 요소들이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Cook, 2001) 기술 행위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경험과 사건을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을 구성(김애령, 2020)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이야기를 통해 사건들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그 안에 다양한 경험적 요소를 통합하는 형상화 능력으로 결핍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간직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Ricoeur, 1984)로 아키비스트의 서사 정체성이라 하겠다.

아키비스트의 정리·기술과정에서의 경험은 아키비스트의 서사의 원천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서사는 이용자와 경험을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사가 아키비스트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감정, 교훈, 및 통찰력을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은 수준에서 공감하고 배우고 연결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적 기술이 실행되기 위해 아키비스트의 주관적 기술에 대한 담론과 아카이브의 주관성(박주희, 2014)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키비스트의 주관적 기술은 아키비스트 개인의 경험, 지식, 능력, 가치관 등에 근거한 주관성을 의미하며, 아카이브의 주관성은 아카이브 자체의 목적, 정책, 선별 기준 등에 근거한 주관성을 의미한다(박주희, 2014).

주관적 기술과 주관성은 서사적 기술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아키비스트들과 아카이브들 간의 담론과 논의를 통해 탐구되어야 한다. 아키비스트

의 주관적 기술은 아키비스트 개인의 경험, 지식, 능력, 가치관 등에 근거하여 형성된다. 이는 아키비스트의 개인적인 성향과 전문성, 창의성 등을 통해 아키비스트가 서사적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기술은 아키비스트의 개인적인 역량과 성격을 반영하며, 이는 서사적 기술의 실행 방법과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카이브의 주관성은 아카이브 자체의 목적, 정책, 선별 기준 등에 근거하여 형성된다.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수집, 보존, 정리, 제공 등의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해 주관성을 갖고 행동한다(박주희, 2014). 그러므로 서사적 기술의 실행을 위해 아카이브의 주관성과 아키비스트의 주관성, 그 둘의 상호작용에 대한 담론과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둘째, 서사적 기술 실행을 위해 아키비스트는 기록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아카이브의 서사적 기술은 모두 폭넓고 심층적인 기록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폭넓고 심층적인 기록연구를 바탕으로 쓰인 기술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잘 모르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를 잘 모르는, 기록의 활용점을 찾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기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아가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활성화된 아카이브가 다시 아키비스트의 다양한 기술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아키비스트는 서사적 기술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을 기획하여야 한다. 이는 서사적 기술의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의 목적으로 먼저 기록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서사적 기술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작업 일정과 자원을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한다. 이러한 기획에 협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키비스트는 서사적 기술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가들 및 이용자들과의 협업을 기획하고 조율해야 한다. 기록주제영역 전문가, 기관의 기능, 조직, 업무 경력자, 글쓰기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서사적 기술에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야 한다. 동화작가, 추리작가, 전기작가, 역사가,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기록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이용자들이 서사적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기억과 경험을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서사적 기술에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시스템을 열린 구조로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지와 같은 부분을 포함하거나, 자료 이용에 관한 정보나 다른 컬렉션의 안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적 기술은 궁극적으로 아카이브의 가치를 알리고 기록의 활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술 안이다. 본 연구는 기술에서의 서사적 탐색이 개별적인 기록들에 의미 있는 전체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 시각을 기를 수 있고 사건의 인과적 연쇄인 플롯으로 인하여 사건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인과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특정의 방식으로 재현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경험이 하나의 서사로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용자들은 서사적 기술을 통해 기록을 읽으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시각에서 다시 이 경험과 기억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사적 기술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한 이론적 연구로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 다양한 아카이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서사적 기술의 모형 개발을 비롯하여 풍부한 서사적 기술의 사례 마련, 효과적인 실행 방안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은지, 이해영(2022). 기록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151-174.

- 김선유 (2022). 기록물의 '범위와 내용' 기술을 위한 문서요약기술 적용.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관리전문대학원.
- 김영진 (2014). 디지털 내러티브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국기업에서의 체험서사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4호, 89-111.
- 김애령 (2020).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씨.
- 박주희 (2014). 아키비스트의 시대적 요청: 실천적 아키비스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 박지영 (2016). 차세대 기록물 기술표준에 관한 연구: ICA EGAD의 Record in Context 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223-245.
- 박지영 (2017). 디지털 시대의 기록물 기술과 접근: The National Archive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87-107.
- 설문원 (2009).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3-43.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5-46.
- 설문원 (2021). 기록학의 지평. 서울: 조은글터.
- 안병직 (2004). 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의 역사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vol., no.51, 35-75.
- 원 철 (2003). 차이와 생성으로서의 디지털서사: 공감각적 내재성. 영남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9호, 525-550.
- 이영남 (2013). 상징아카이빙: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38호, 125-187.
- 이혜영 (2020). 기록의 분류·기술과 검색도구. 서울: 선인. 2020.
- 임경순 (2004).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Abbott, H. P. (2002).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옮김(2010). 서사학 강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arthes, Roland (1982). Introduction to the Sturctural Analysis of Narratives: Image-Music-Text. reprinted in Susan Sontag(ed.), A Barthes Reader, New York: Hill and Wang, 251-295.
- Burton, Antoinette, Ghosh, Durba, Sahadeo, Jeff, Robertson, Craig, Ballantyne, Tony, Horacio, N., ... Curthoys, Ann (2006). Archives Stories: Facts, Fictions, and the Writing of Histor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Beattie, Heather (2009). Where narratives meet: archival, provenance and women's diaries. *Libraries and the cultural record*, 44(1), 82-100.
- Chatman, Seymour (1990).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landinin, Jean & Connelly, F. Michael (2000). *Narrative Inquiry*. (소경희 옮김 (2006). 내러티브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Cook, Michael (1996). Managing Archives: A Basic Program. *Fontes Artis Musicae*, Vol., 43, No. 3, 235-241.
- Cook, Terry (1992).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s in the Post-Custodial Era: Theory, Problems and Solutions. *Archivaria*, 35(February), 24-37.
-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2001/1), 3-24.
- Cook, Terry (2012).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a. *Archival Science* 12, 95-120.
- Derrida, Jacques (1996).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trans. Eric Prenowitz,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ff, Wendy & Harris, Verne (2002). Stories and Names: Archival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2.
- Howarth, Lynne C., & Knight, Emme (2015). To every Artifact Its Voices; Creating Surrogates for Hand-Crafted indigenous Object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53, 580-595.
- Hurley, C. (1995). Problem with Provenance. *Archives and Manuscripts*, 23(2), 234-259.
- Jimeron, Randall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역,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Ketelaar, Eric (2001). Tacit Narratives: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es and Museum Informatics* 1(2), 131-141.
- Ketelaar, Eric (2005). Sharing: Collected Memories in Communities of Records. *Archives & Manuscripts*, vol. 33, no. 1, 44-61.
- Light, Michelle & Hyry, Tom (2002).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 *American Archivist*, 65, 226-227.

- MacNeil, Heather (1995). Metadata Strategies and Archival Description: Comparing Apples to Oranges. *Archivaria*, 39(Spring 1995), 22-33.
- McKemmish, Sue, & Michael, Piggott (2013). Toward the Archival Multiverse: Challenging the Binary Opposition of the Personal and Corporate Archive in Moder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ria*, 76 (November), 111-114.
- Millar, Laura (2006). Touchston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Archivaria*, 61, 105-126.
- Miller, Fredric, M. (1990).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Archival Fundamentals Ser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조경구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SAA 기록학 기초 시리즈 2. 서울: 진리탐구)
- Nesmith, Tom (1999). Still Fuzzy, But More Accurate: Some Thoughts on the 'Ghosts' of Archival Theory. *Archivaria* 47, 144-45.
- Nesmith, Tom (2002).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Vol, 65, 23-41.
- O'Toole & Cox (2006). 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econd edition. Archival Fundamentals Serie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Portland: Book News, Inc., p.39.
- Ricoeur, Paul (1984). Time and Narrative, 3vols., Kathleen McLaughlin & David Pellaure(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Srinivasan, R., Becvar, K.M., Boast R., & Enote, J. (2010). Diverse knowledges and contact zones within the digital museum. *Sci Technol Hum Values*, 35(5), 735-768.
- Stowe, A. (2021). Archive, Narrative, and Loss, *Meta*,66(1), 178-191.
- The National Archives (2017). The National Archives' Digital Strategy 2017-2019. Retrieved 1 September 2023. from <https://cdn.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the-national-archives-digital-strategy-2017-19.pdf>.
- The National Archives (2023). Archives for Everyone 2023-27. Retrieved 3 August 2023.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about/our-role/plans-policies-performance-and-projects/our-plans/archives-for-everyone/strategic-priorities-2023-27>.
- White, V. Hayden (1973).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Yeo, Geoffrey (2007). Concepts of record(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 *The American Archivist* 70(Fall/Winter 2007), 315-343.
- Yeo, Geoffrey (2010). Representing the Act: Records and Speech Act The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31, no.2, 95-117.
- Yeo, Geoffrey (2017). *Continuing Debates about in the current Archival Thinking*. 2nd edition, Edited by Heather MacNeil and Terry Eastwood (Santa Barbara, California, USA: Libraries Unlimited, 163-192.

<표준>

국가기록원, NAK 13:2022(v2.1) 영구기록물기술규칙.

<웹사이트>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 <https://www.archivecenter.net/tongilhouse>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

미국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 of California, OAC). <https://oac.cdlib.org/>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TNA). <https://beta.nationalarchives.gov.uk/explore-the-collection/stories/>